

전남도, ‘美 상호관세’ 대응...수출 돌파구 찾는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서 전남관 13개 중기 식품·바이오·뷰티 전시 바이어 수출 상담·협약 체결 성과 “수출시장 다변화·품질 중심 전략”

전남도가 미국의 고율관세 정책이라는 통상리스크 앞에서도 수출 중소기업의 미국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적 행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3일 대외무역 조치로 ‘상호관세(Mutual Tariffs)’ 정책을 발표하며, 한국을 포함한 일부 주요 수출국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는 ‘자국 제품에 불공정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관세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새로운 글로벌 통상 질서의 서막을 알리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후 미국 정부는 9일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 여지를 확보하고, 미국 산업계의 반응을 반영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우리 수출기업에게는 통상위기 속에서 협상과 시장 확대를 위한 ‘골든타임’이 주어진 셈이다.

이에 전남도는 이를 실질적 기회로 전

환하기 위해,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17일(현지시간)부터 열린 ‘2025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WKBC)’에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 참가하는 등 현장에서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개회식에는 개스사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려 재외동포청장, 미국 주정부 고위인사, 미주한상총연 관계자, 세계 한인 경제인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이번 대회를 미국시장 전략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13개 유망 중소기업을 현지에 파견해 ‘전남관’을 운영했다. 참가 기업은 푸드파파(곡성), 해정정(완도), 남도소반(목포), 현대푸드시스템(장성), 엔피케이(담양) 등 미국 현지

수요에 부합하는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포함됐다.

식품·바이오·뷰티·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 수출기업은 직접 제품을 전시하고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 협약 체결 등을 통해 미국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 화순의 ㈜디엑스엠은 80만 달러 규모의 염색제 수출 업무협약(MOU)을 하는 성과를 올렸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전남도는 이번 사태를 통상 위기가 아닌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실질적 교두보 확보에 나섰다”며 “지역 기업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은 일시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으나, 동시에 수출시장 다변화와 품질 중심 전략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남도는 앞으로 수출기업이 세계무대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민관 협업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또 18일 스타트업 피칭 & VC 투자포럼에서 지역 기업 4개사와 함께 글로벌 벤처투자자와 직접 연결하는 등 미국시장 맞춤형 기술·제품 홍보와 투자 유치 기회로 적극 활용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광주시, 111개 지원 ‘청년정책 길라잡이’ 발간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5개 분야

광주시는 지역 청년들이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2025 광주 청년정책 길라잡이’를 제작, 청년센터 등 관계기관에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책자에는 △일자리 △주거지원 △교육·역량 강화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111개의 청년 지원정책이 수록됐다.

광주시는 청년정책 관계기관들을 방문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정책별 지원 내용, 신청 자격, 문의처 등을 보기 쉽게 정리했다.

광주시의 청년정책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청년 관련 통계와 광주 청년지도 등도 함께 수록했다.

‘청년정책 길라잡이’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광주청년통합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배포된다.

광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청년정책을 종합 정리한 길라잡이를 발간해 왔으며, 올해는 더욱 직관적인 구성과 최신 정보를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다.

권운숙 청년정책과장은 “2025 광주 청년정책 길라잡이가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쉽게 찾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정책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정책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광주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80% 지원

농업인 소득안정·경영불안 해소

광주시가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농작물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재해복구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다. 광주시는 이 사업에 시비 6억6000만원 등 총 43억원을 투입해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농가에서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광주 지역 농가 약 3000여 곳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손해 발생 시 보험금은 실제 피해 규모에 따라 평가 후 지급된다.

보험가입 대상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벼 등 76여 개 품목이다. 광주시에서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농업인이면 지역농협을 통해 연중 가입할 수 있다.

정상이 기자

전남도, 난임부부 지원 10개 사업 35억 투입

시술비 지원, 한방 난임치료

전남도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3년 현재 6500명의 난임부부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한방 난임치료 등 10개 사업에 35억 원을 투입해 저출산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 결과,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은 매년 20~30%에 달하며, 출산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도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을 새로 시행하는 등 10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12일 난임시술 의료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난

임부부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현장경험을 공유하며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 시술과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구체적 급여화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난임 부부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지속해서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김명신전남도 인구청년인민국장은 “난임부부가 경제적 이유로 시술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가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한 아이를 만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개막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한중 장성군수, 김태균 전남도회의의장,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등이 지난 18일 장성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개막식에서 입장하는 선수들을 환영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꿈을 안고 장성으로, 전남을 품고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22시군 7000여명의 선수단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친다.

전남도 제공

강 시장 “5·18 헌법 전문수룩으로 4·19 정신 완성”

광주공고서 4·19 65주년 기념식 “4·19는 헌법 가치 지키는 나침반”

강기정 광주시장은 “4·19혁명에 대한 국민의 헌법전문에 당당하게 기록돼 헌법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는 나침반이다”며 “우리는 4·19혁명 정신을 키우고 완성시켜야 한다. 그 일은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해 광주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19일 광주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강 시장은 “계엄을 막고 탄핵의 강을 건너 새로운 민주주의 정부를 만드는 길목

에서 맞이한 4·19혁명 65주년은 참으로 기쁜 날이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이뤄지기를 열망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4·19혁명 시위 참가자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 주역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강 시장은 “65년 전 광주공업고 학생들은 금남로에 집결해 4·19혁명의 한복판에 서있었고, 그 소년소녀들은 80년 5월의 수많은 동호자 됐고, 오늘날에는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응원봉을 들고 빛을 밝힌 키세스 단이 됐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들의 희생과 헌신, 참여로 이뤄져 있다. 우리는 내년에도 미래세대가 있는 혁

명의 교정에서 4·19정신을 기릴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 앞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광주공원 4·19혁명기념탑에서 헌화·분향도 진행됐다. 참배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석기 광주지방보훈청장, 양부남·조인철·박균택 국회의원, 4·19공법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강 시장의 제안으로 4·19정신이 박제화되지 않고 다음 세대에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고등학교에서 순차적으로 기념식을 개최하며 기념식 장소에도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정상이 기자

광주 지방의원, ‘12·3계엄부터尹 파면까지’ 집담회

시구의원들 ‘탄핵정국 경험’ 공유 “조기 대선 승리...민주주의 수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그리고 6·3 조기 대선을 거치는 격변의 정국 속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앞장섰던 광주의 지방의원들이 123 일간의 여정을 돌아봤다.

광주 시·구의원 19명(시의원 8명·구의원 11명)은 지난 18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123일간 겨울, 다가올 새봄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집담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3일 계엄령 선포부터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까지 각자의 경험을 나눴다.

정재성 북구의원은 “외할머니 장례식 도중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상복을 벗은 채 의회로 향했다”며 “군과 경찰의 소극적 대응 뒤에는 광주가 심어온 인권이식이 있었다고 믿는다”고 회상했다.

집담회에서는 비상계엄 당시의 충격과 분노,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던 긴장감,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응원 등 각자의 생생한 경험이 릴레이 발언을 통해 공

유됐다. 특히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지방의회의 모든 활동을 금지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도였다고 비판했다.

박수기 시의원은 “45년 전 광주처럼, 다시 한번 깨어 있는 시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담회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 다가올 조기 대선에서 민주주의 수호 세력의 단결을 촉구하는 자리가 됐다. 참석자들은 광주정신을 잇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와 실천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정성현 기자